

“不條理 근절없이 建築文化 발전안돼”

다음은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열렸던 건축사 자율정화 결의대회에서 행했던 金枝泰회장의 대회사를 옮긴 것이다.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참다운 方向을 제시하기 위해 不斷한 努力을 게을리 하지 않는 會員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가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政務에 바쁘신 중에도 이 行事を 위하여 왕림하여 주신 건설부 이관영차관님께 본협회 회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謝意를 표합니다.

會員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政府가 汎國民的 차원에서 推進해 오고있는 意識改革運動과 淨化運動을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展開시킴과 아울러 建築分野에 對한 不條理를 剔抉하여 새롭고 堅實한 座標를 設定, 推進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고 있는 問題점이 무엇이며 그 打開策으로서 우리가 저야할 짐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하고 反省하여 그동안 쌓아 올린 成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검질하는 유익한 時間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國民經濟의 안정과 世界 속의 韓國으로 발돋움하였던 七〇年代의 高度成長 속에서 特히 建築分野는 여타분야에 비해 그 成長度가 눈부셨음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建築은 새우고 쌓는 作業만이 아니라, 한 時代를 特定지을 수 있는 造形藝術의 古典的 역할을 遂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分野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바랐던 진정한 建築文化는 결코 오늘의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排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量과 質의인 면에서 左右均齊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기형적

인 상황에서는 정확한 價値判斷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정적 요인은 物質主義나 拜金主義가 빚어낸 社會現象의 一部일 뿐만 아니라 우리 建築界에 內在하고 있는 不條理의 뿌리가 크게 그 影響을 미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도 事實일 것입니다.

그동안 建築界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우리周邊에 殘存하고 있는 명의대여와 보수요율의 덤핑행위, 그리고 설계 및 감리業務와 관련된 不誠實하고 不條理한 行爲 등이 지탄의 對象이 되어왔으며 이러한 諸要素들이 건전한 建築風土를 해치는 惡性要因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악성요인들이 근절되지 않는 限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發展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未來를 指向한 前進 또한 결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간 建築風土 쇄신을 위한 會員 여러분의 不斷한 努力의 代價로 우리 建築士들의 社會的 위치가 어느 정도 改善 向上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음성화 한 不條理의 根絶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는 實情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러한 時点에서, 최근 政府는 建築分野에 尚存하고 있는 不條理를 剔抉하고 나아가 건전한 建築風土 造成을 통한 建築文化의 지속적인 育成, 發展에 注力하고자 “建築分野 不條理剔抉對策”을 發表한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조치에 있어 特記할 事項은, 종래 建築行爲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적발되면 대개의 경우 建築士가 그 책임을 지는 部分的인 처벌의

주를 止揚하고 관련자인 建築主와 시공자 그리고 건축사 및 해당 公職者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연대책벌제를 채택한 점입니다.

政府當局의 이와같은 不條理剔抉對策이 건전한 建築風土 造成에 분명히 큰 效力을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바라기는 우리 會員 各者가 이 기회를 통해 깊은 覺醒과 자기 省察로 業務에 임해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建築士 業務와 직접 관련이 되는 건축관계법규 가운데 現實과 맞지 않는 部分으로 해서 적지않은 支障을 받아온 바 있음을 감안하여 長期對策의 하나로 건축관계법규를 전면 再檢討할 것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將來에 우리 會員이 바라는 制度的 뒷받침이 業務遂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오늘날 우리가 遂行하는 建築行爲에 의해 造形되는 각종 建築物들이 그대로 遺産으로 남아 後孫들에게 물려주게 되며 그 遺産 속에 우리의 意志와 정성이 담겨 전달된다고 생각할 때 어느 한 순간도 한점 소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되리라 여겨집니다.

부디 우리에게 주어진 이 時代의 建築文化가 歷史 가운데 찬란한 금자탑으로 記錄될 수 있도록 다같이 努力할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大會辭에 가름합니다.

一九八三年 七月 二十九日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金枝泰